

# 여성과 신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이 의미 있는 설교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시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서 하는 교회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 . .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4~5*] . . .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시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0~51쪽)

# 여성과 신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이 의미 있는 설교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여성에게도 권세가 주어졌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시다. 상호부조회가 하는 일은 신성한 권세로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성 혹은 여성이 성전이나 와드, 지부에서 하는 교회 일은 신권 열쇠를 지닌 이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와드 감독의 지시 아래 . . .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유익과 현세적인 유익을 돌보며 봉사할 권세를 지니는 이 위대한 조직을 주셨습니다.’[*‘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4~5*] . . .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시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0~51쪽)

